

유라시아 시대 한-우즈베크 협력방안 토론회 참석 및 과수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14. 5

보고자: 김 경 필 연구위원

I. 출장 개요

1. 출장 필요성 및 목적

- 필요성: 한-우즈베크간 교통, 에너지, 농업부문에서의 발전적인 협력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한-우즈베크 정책토론회」를 개최
- 목적: 유라시아 시대 한-우즈베크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좌장, 토론 참여

2. 출장 지역: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3. 주요 내용

- 유라시아 시대 한-우즈베키스탄 협력방안 정책토론회 참여
(정책토론회 주요 프로그램: 붙임1 참조)
- 주요 발표 및 토론내용: (발제문: 붙임2, 3, 4 참조)
- 우즈베크 도매시장 판매실태 조사
- 우즈베크의 과수산업 기반실태 조사

4. 출장자: 최세균 원장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선임연구위원 허 장
식품유통연구부 연구위원 김경필

5. 출장기간: 2014. 4. 28(월) ~ 2014. 5. 2(금) (3박 5일)

6. 주요 자료: 유라시아 시대 한-우즈베키스탄 협력방안 보고서

7. 주요 일정

일 시	내 용	방문기관
4.28(월)	◦ 이동(인천 출발)	◦ 도착(우즈벡 타슈켄트 도착)
4.29(화) 09:00~12:00	◦ 농식품 판매실태 조사	◦ Guiluk 도·소매 시장
13:00~15:00	◦ 정책토론회 발표내용 협의 및 기술보급현장 방문	◦ Kopia (농촌진흥청 센터) -면담자: 성낙술 소장 -전화: +998-71-241-2344 -메일: seongnaksul@hanmail.net
16:00~18:00	◦ 타슈켄트 농업대학 KOICA 시범온실, KOPIA 센터 -한-우즈벡 토마토, 딸기 등 시 범온실 등 운영실태 조사	◦ KOICA 한국국제협력단 시범온 실, KOPIA 센터 시범농장(타슈켄 트 교외)
4.30(수) 10:30~17:30	◦ 한-우즈벡 정책토론회 참석 및 좌장, 발표, 토론	◦ 타슈켄트 - International Hotel
18:30~20:00	◦ 주우즈벡 한국대사관 방문	◦ 주 우즈벡 한국대사관 -면담자: 이욱헌 대사, 김소희 참사관 -전화: +998-71-252-3151 -메일: shkim92@mofa.go.kr
5.1(목) 우즈벡 출발 (22:05)	◦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사 ◦ 우즈베키스탄 → 인천공항	◦ 사마르칸트 누라따 -포도농장 운영실태 조사
5.2(금)		◦ 인천도착(08:25)

II. 주요 출장내용

1. 유라시아 시대 한-우즈베키스탄 협력방안 정책토론회

가.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4년 4월 30일 10:30~17:30

International Hotel Tashkent 2층 아무르티무르 홀

□ 참석자

○ 총 참여인원: 약 200여명

- 한국측

구분	성명	소속	
총괄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연구회 (3명)
	조병덕	전문위원	
	윤여인	연구기획본부 연구위원	
Wisemen	김성환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단장/前 외교부장관	5명
	김정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前 지경부제2차관	
	안충영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이희수	한양대 교수	
	윤명철	동국대 교수	
행사 참가자	김남석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기술위원회 부위원장/前 행안부차관	정부부처 (3명)
	이욱헌	주우즈벡 대사	
	안성준	KOTRA 타슈켄트 무역관장	
	이동수	대한항공 우즈베키스탄사업단 상무	산업계 (2명)
	오홍용	한국가스공사 Uz-Kor Gas Chemical 부사장	
	조동호	이화여대	학계(1명)
	김경철	한국교통연구원(KOTI) 원장	연구기관 (11명)
	예충열	KOTI 본부장	
	안병민	KOTI 실장	
	서종원	KOTI 부연구위원	
	이옥남	KOTI 연구원	
	손양훈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원장	
	박용덕	KEEI 본부장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허 장	KREI 센터장	
	김경필	KREI 연구위원	
	성낙술	농촌진흥청 우즈벡 센터 소장	
	이진석	조선일보 경제차장	언론(1명)
총원			총 26명

- 우즈베크측

구분	성명	소속	기타
정부관계자 (11인)	아지모프	제1부총리	환영사
	A.Sultanov	First Deputy Chairman of NHC “Uzbekneftegaz”	
	I.Ergashev	Deputy Minister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 Investments and Trade (FERIT)	
	A.Akbarov	First Deputy Director General of NAC “Uzbekiston Havo Yullari” (Uzbekistan Airways National Airline)	
	T.Aliyev	Head of the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 Investments and Trade	
	A.Khodjiyev	Head of the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 Investments and Trade	
	H.Haydarov	Head of the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 Investments and Trade	
	비탈리	전 주한 대사	
	A. Kamalov	First Deputy Minister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 Investments and Trade	
	U.Israilov	Head of the Department of NHC “Uzbekneftegaz”	
	O.Egamberdiyev	Head of the Department of the MFERIT	
Wisemen (8인)	A.Abdukhakimov	Chairman of the State Committee on Privatization, Demonopolization and Development of Competition	좌장
	F.Mukhamedov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Monitoring of Current Legislation	
	M.Askarov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S.Tulyaganov	Deputy Minister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 Investments and Trade	
	A.Sadikov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Forecasting and Macroeconomic Research	
	YA.Hidirov	Deputy Minister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M.Teshabayev	Deputy of the Legislative Chamber 한-우즈베크 의원친선협회장	
	B.Abdusalimov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named after Abu Rayhan Biruni	
총원			19인

나. 공식 행사 및 토론회 프로그램

시 간	주요 내 용
4.30(수) 10:30~11:00	등록 (장소: International Hotel Tashkent 2층 아무르티무르 홀 입구)
11:00~11:30	개회사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박근혜 대통령 축하 영상(2분) 환영사 우즈베키스탄 아지모프 제1 부총리 축사 이욱헌 대사, 김성환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단장/前 외교부장관
11:30~11:40	휴식
11:40~12:40	세션(1) 교통 한·우즈베키스탄 교통물류협력방안-나보이 공항 및 배후물류단지 활성화 방안 좌장: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발표(한): 예충열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발표(우): A. Kamalov, First Deputy Minister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 Investments and Trade 토론(한): 이동수 대한항공 우즈베키스탄사업단 상무 토론(우): A.Akbarov, First Deputy Director General of NAC “Uzbekistan Havo Yullari” (Uzbekistan Airways National Airline) / T.Aliyev, Head of the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 Investments and Trade
12:40~14:00	오찬 (장소: International Hotel Tashkent 1층 크리스탈 볼룸)
14:00~15:00	세션(2) 에너지 한-우즈베키스탄 가스 산업부문 협력 방안 좌장: 손양훈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발표(한): 오홍용 한국가스공사 Uz-Kor Gas Chemical 부사장 발표(우): A.Sultanov, First Deputy Chairman of NHC “Uzbekneftegaz” 토론(한): 박용덕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 토론(우): U.Israilov, Head of the Department of NHC “Uzbekneftegaz” / Representative from the Institute of Forecasting and Macroeconomic Research under the Cabinet of Ministers
15:00~15:20	커피 브레이크
15:20~16:30	세션(3) 농업 한-우즈베키스탄 농산물 가공 수출 산업 협력방안 좌장: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발표(한): 성낙술 우즈베키스탄 KOPIA센터 소장, 김경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발표(우): A. Kamalov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부 제1차관 토론(한): 허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센터장 토론(우): Nurmatov 우즈베키스탄 수자원부 차관
16:30~17:30	종합토론 한국 좌장(한): 안충영 KOTRA외국인투자유증부즈만/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토론(한): 김성환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단장/前 외교부장관, 김정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前 지경부제2차관, 이희수 한양대학교 교수, 윤명철 동국대학교 교수 우즈베키스탄 좌장(우): A. Abdukhakimov, Chairman of the State Committee on Privatization, Demonopolization and Development of Competition 토론(우): Wisemen(8인)

2. 토론회 개요와 주요 내용

가. 세션1: 교통물류분야 토론 요지

○ 발표 1: 한국교통연구원 예충열 본부장

- 교통분야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 한국의 경제발전을 견인한 기간교통망 구축, 대중교통 개혁, 물류분야 혁신 경험 등을 활용하여 우즈벡 교통공무원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교육(국토부, KOICA, World Bank 프로그램 참여, 또는 우즈벡만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우즈베키스탄 국가교통망 기본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등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 시행(경사연과 우즈벡 정부에서 예산 지원)
- Navoi공항과 경제자유구역(FIEZ)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인천공항의 경험과 마케팅 전략 활용)

○ 발표 2: A. Kamalov, First Deputy Minister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 Investments and Trade

- 그 동안 우즈베키스탄이 효율적인 교통,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2000여개 이상의 양자 및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여 왔음을 밝히고, Trans Asian Road와 Trans Asian Railroad를 구축하여 과거의 great silk road를 복원하는데 노력해왔음
- 한국과도 물류 합작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성과가 좋아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10년부터는 동부지역의 전철을 건설하여 중국철도와 효율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한국의 화물도 유치할 것이며, 철도통과화물에 관심이 많고 항공화물분야에서도 나보이 공항에서 협력하여 국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 토론 1: 대한항공 이동수 상무

- 그 동안 나보이공항을 운영해온 경험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협력 과제를 제시

- 우즈베크는 1차산업중심이나 계절성이 커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필요하며 국경적체문제 해소, 통관전산화 등이 필요함
- 나보이를 항공물류허브로 육성하는 정책은 탁월한 선택이며 수요자중심의 유치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의 시설 및 정책과 비교하여 개선해야 함
- 3개의 경제특구는 각각 차별화된 운영이 필요하며, 항공화물 연관산업은 나보이에 유치 필요
- 법규제도개선 전담창구가 필요하며, 물류전문인력 육성 필요, 통관절차 투명화, EDI도입 필요

○ 토론 2: A.Akbarov, First Deputy Director General of NAC “Uzbekistan Havo Yullari” Uzbekistan Airways National Airline

- 5년간 대한항공과 협력한 경험을 높게 평가하고 세계의 많은 주요 도시를 연계하여 약 18만톤을 처리한 실적 소개
- 2019년까지 협약연장을 계획하고 있음
- 철도연계운송 등 복합운송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중인데, 이웃국가와 해외 국가를 연계하는 항공화물운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새로운 관세법에 입각하여 우대통관이 가능토록 계획하고 있음

○ 한-우즈벡 교통물류부문 협력과제

1. 교통분야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

- 한국의 경제발전을 견인한 기간교통망 구축, 대중교통 개혁, 물류분야 혁신 경험 등을 활용하여 우즈벡 교통공무원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교육 (국토부, KOICA, World Bank 프로그램 참여, 또는 우즈벡만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2. 우즈베키스탄 국가교통망 기본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등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 시행

- 경사연과 우즈벡 정부에서 예산 지원

3. Navoi공항과 경제자유구역(FIEZ)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 인천공항의 경험과 마케팅 전략 활용

나. 세션2: 에너지분야 토론 요지

○ 발표 1: 오홍용 한국가스공사 Uz-Kor Gas Chemical 부사장

- 2006년 체결된 협약을 바탕으로 Surgil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2015년 Surgil 가스전생산과 UGCC 완공예정
- 동 프로젝트는 가스생산이라는 상류부문부터 석유화학공업이라는 하류부문을 수직적으로 결합한 사업인데, 석유화학제품의 판로개척을 통해 유라시아 에너지교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임
- 동 프로젝트는 우즈벡 사회에 고용효과, 사막지역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건설 등을 통해 향후 한국-우즈벡 협력사업의 모범사례로 기여할 것임.

○ 발표 2: A. Sultanov, First Deputy Chairman of NHC “Uzbekneftegaz”

- Surgil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가스산업의 5대발전방향을 설명

:신규자원매장량 확보, LNG 인프라의 현대화, 가스수송인프라 개선, 석유 화학제품생산의 다양화, 수입석유화학제품의 대체산업개발 등을 제시

- 특히 석유화학산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는 관련제품의 수출확대를 추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 이를 통해 석유가스의 수출보다도 고부가가치 에너지제품 생산확대를 달성할 것임.
- 한국과는 이를 위한 최첨단 기술관련 협력을 기대하고 있음.

○ 토론 1: Israilov, Head of the Department of NHC “Uzbekneftegaz”

- 한-우즈벡 협력방안으로 지질탐사 등 기술협력이 기대되는 분야임
- Surgil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1차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성공했으므로 기술 협력과 향후 통상확대 등 2차적 협력관계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토론 2: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용덕 본부장

- 우즈벡은 가스생산 증대를 통해 수출시장의 확대를 도모하면서 특히 대중국 수출 확대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음.
- 기존 및 신규가스관을 활용하여 대중국 수출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우즈벡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투자유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 토론 3: Sadikov

- 우즈벡 정부는 외국투자에 대한 투자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Surgil 프로젝트은 이전 외국투자프로젝트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된 사업으로 향후 외국인 투자프로젝트 추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음.
- 우즈벡 가스산업은 단순히 가스수출이 아닌 고부가가치의 제품생산과 수출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창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경제환경에서 한국은 우즈벡과 기술협력을 통해 우즈벡시장 진출을 달성하고 우즈벡은 가스산업의 고도화를 달성할 수 있음.

○ 한-우즈벡 에너지부문 협력과제

1. 우즈벡 가스산업의 고도화, 즉 단순한 가스수출이 아닌 제품수출확대를 달성하기 위해 수직적 결합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의 추가적 추진이 필요하며 법적, 제도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Surgil 프로젝트가 모범사례로 제시될 수 있음.
2. 또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석유가스제품 생산체인의 연계기술 전수를 통한 최첨단 기술협력이 가장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임.
3. 장기적으로 Surgil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에너지프로젝트의 추진이 필요한바 우즈벡의 투자환경개선과 제도적 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우즈벡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필요함

다. 세션3: 농업분야 발표 및 토론 요지

○ 발표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경필 연구위원

- 우즈벡 과일 수출은 단기적으로는 반가공식품을, 장기적으로 신선과일을 수출하는 전략이 유효

○ 발표 2: 우즈베키스탄 KOPIA센터 성낙술 소장

- 한-우즈벡 농업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은 저온저장과 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우즈벡은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

○ 발표 3: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부 제1차관 A, Kamalov

- 우즈벡의 채소·과일 수출잠재력이 높고 최근 관련 산업 성장률이 높다.
- 과일류 가공산업은 향후 우즈벡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임

○ 토론 1: 허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신선과일 판매보다 가공 및 수출비중 확대가 필요하며, 나보이 물류단지에 고급농산물 가공제품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 지원이 필요
- 가공산업은 농가소득과 가공공장 운영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규모 농가조직 단위를 중심으로 1차 단순가공시설 보급이 필요

○ 토론 2: Nurmatov 우즈베키스탄 수자원부 차관

- 기존에 한국의 기관들과 MOU를 체결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앞으로 협력사업을 더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더 긴밀한 협력이 필요

그림. 한-우즈벡 정책토론회 전경



3. 우즈벡 Guiluk 도매시장 조사 결과

-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요 품목은 신선 농산물이 대부분이고,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므로 고가의 물품은 거의 거래되지 않음.
- 사과, 토마토 등 과일류는 트럭에서 1단상자 단위로 도매가격에 흥정하여 판매하는 시스템임. 색택이나 모양보다는 무게가 중요한 거래척도임.
 - 양파, 마늘, 채소류 등 별도의 야채매장에서 도매로 판매
- 고려인들이 주로 거래하는 소매시장에서는 채소류 종묘와 육묘 시장이 별도로 형성되어 있음.
- Guiluk 도매시장은 인근에 고려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소매시장에서는 한국 전통식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음.
 - 판매되는 품목은 거의 모든 식품류를 포함하며 절임류, 두부, 곡류 등이 대표적임
- 도매시장에서 소매로 판매하는 과일류 가격은 한국산 가격에 비해 저렴한 편임.
 - 사과 중과 3개 4,000숨(약1,400원)
 - 레몬 중과 6개 4,000숨(약1,400원)
 - 수박 대과 1개(1,500원)

그림. 타슈켄트 Guiluk 도소매시장 판매 전경

	
<과일판매시장 레몬판매>	<과일류 무게 저울>



<묘목·종묘 소매시장>



<과실류 건조상품>



<양파 도매거래상>



<양념류 판매시장>



<채소류 소매시장>



<한국 절임류 판매시장>

4. KOICA 육묘온실, KOPIA 시설하우스

- KOICA 채소, 멜론, 감자 육묘온실
 - 공사명: 우즈베키스탄 시범온실 지원사업
 - 위치: 국사라이
 - 온실면적: 1,536m²
 - 공사기간: 2012.10.31.-2013.5.30



<타슈켄트 KOICA 채소·멜론·감자 육묘온실>

- KOPIA 시설하우스
 - 기술교육 내용: 겨울철 딸기 생산기술
 - 품종: 설향(논산 딸기시험장 육성품종)
 - 주요 투입기술: 비닐피복, 점적관수, 수정벌 방사
 - 수량성: 초기수확(2월 첫주 1회: 20kg/150m²)
 예측 생산량 (3~5월, 15회): 500kg/300m²
 - 문제점: 초기투자부담, 생산비 부담



<성낙술 소장의 시설하우스 운영 설명>



<KOPIA 프로그램 참여학생, 토론회 참석자>

5. 타쉬켄트 농업대학 KOICA 시범온실

- 시설하우스명: 타쉬켄트 농업대학 재배온실
- 위치: 타쉬켄트 농업대학
- 용도: 토마토 재배온실
- 온실면적: 5,184m² (1,568평)
- 공사기간: 2012.10.31 - 2013.5.30.
- 발주처: 한국국제협력단(KOICA)
- 주요 기술내용
 - 재배온실이 토마토를 재배하기에 적지가 아니었지만 적절한 위치를 찾지 못하여 이곳 농업대학에 시설을 설치
 - 양액재배 토마토 줄기를 눕혀서 키우는 기술로 단위당 수확량을 높임.
 -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이 적극적으로 기술을 수용하지 않은 어려움과 노동자들의 근무태만이 운영하기에 어려운 점임



<재배온실 개요>



<사업운영 실태 경청>



<줄기 눕혀재배기술 보급>



<고위치 작업 광경>

6. 우즈벡 포도농가 영농실태

- 사마르칸트 누라따 지역의 주요 생산과일은 사과, 포도, 모과 등임.
 - 포도과원은 지역에 와인공장이 들어서면서 와인용 포도 중심으로 조성됨
- 포도과원은 국가로부터 임대권을 가지고 운영하며, 최대 49년까지 임대가 가능함.
 - 농가가 포도 농업을 포기할 경우 임대권을 포기하여 국가로 반납함.
- 누라따 지역의 포도농가를 방문하여 포도농장 운영실태를 조사함.
 - 농가의 포도과원 운영은 가족전체 인력을 농장에 투입하는 가족농 형태임
 - 포도과원 운영규모는 3ha 수준임
 - 포도과원 임대에 따른 정부에게 세금을 납부하며, 정부세금은 1ha당 연간 120만숨 혹은 포도 생산량의 약 50% 수준인 5톤임.
 - 포도생산량은 3ha에 약 20톤으로 이중 10~12톤을 국가로 납부하며 이는 생산량의 50~70% 수준임
- 포도과원 관리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었음.
 - 많은 면적이 겨울 냉해 피해를 입어 고사하였음
 - 포도 덩굴의 수형관리가 일정하지 않으며, 키높이가 일정 수준에서 관리되지 않은 상태임
 - 포도과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농자재 부족과 재배기술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됨
- 포도 단위당 생산량 비교(우즈벡과 한국)
 - 우즈벡: 20,000kg/3ha → 6,666kg/1ha(3,000평) → 670kg/300평(10a)
 - 한국: 1,861kg/10a (2013년)으로 한국 단위당 생산량이 우즈벡의 2.8배임(면담농원)
- 포도 가공공장 방문
 - 누라따 지역의 포도는 당도가 높기 때문에 건포도나 와인용으로 생산함
 - 포도 와인공장은 1893~1897년 사이에 설립됨
 - 1914년에 국가로부터 포도와인 최고 품질상을 받음



<가공용 포도 과원>



<동해피해 입은 과원>



<포도 재배농가 면담>



<무화과 과원>

8. 시사점

가. 농업분야 정책토론회

- 한-우즈벡 간 교역장애가 적은 반건조류 제품과 주스 가공제품 원료부터 수출 우선 활성화 전략이 필요함.
- 농가조직 단위로 소규모단위로 산지유통센터(APC)를 건립하고 저온저장, 냉동, 반건조시설을 지원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벨류체인별 부가가치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한국과 우즈벡간 MOU 체결과 공동연구를 확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논의와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가 필요함.

나. KOICA, KOPIA 지원은실

- 한국에서 하우스 재배시설과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있지만 정착하기 쉽지 않은 실정임.
 - 지속적인 시설운영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아직 우즈벡 측의 기술 및 지원프로그램이 부족
 - 한국의 원예품종들도 현지 토양이나 기후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
- 한-우즈벡 농업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지역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정착시키고 장기적으로 확대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함.

다. 우즈벡 도매시장

-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가격이 저렴하지만 품질수준이 낮은 편임. 1차건조제품과 견과류 중심으로 교역확대 품목을 선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라. 우즈벡 포도 생산기반

- 우즈벡 과수생산 기반과 재배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생산기반 지원과 생산기술 컨설팅과 교육 지원이 필요함.
- 우즈벡농민의 토지이용 임대료를 생산물 무게로 납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양이나 색택의 품질제고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임.
- 우즈벡 과일류 교역제품은 주스 등 1차 가공제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